

# 公共圖書館이 相互協力할 수 있는 길

金 匡 熙

(仁川市立圖書館)

## <目 次>

1. 相互協助의 必要性
2. 相互協助의 方法論
  - 가. 資料의 收集
  - 나. 資料의 整理
  - 다. 資料의 利用
  - 라. 資料의 管理
  - 마. 其他圖書館 全般問題

### 1. 相互協助의 必要性

圖書館活動에 있어서 相互協力이란 가장 重要한 問題點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날의 圖書館은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그 存在와 活動面에 있어서 相互間에 有機的인 交流를 갖이고 共同體裁的인 性格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에서는 아직도 國際的인 門戶를 開放한 곳이 몇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增加되는 出版物과 情報의 氾濫을 爲해서 共同體裁的인 努力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 2. 相互協助의 方法論

#### 가. 資料의 收集

우리는 어떠한 方法으로 相互協助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해서 먼저 資料의 效果的인 收集方法을 생각하게 됩니다. 最少의 經費로 最大의 資料를 收集함이 그 目的인바 共同選擇이라는 問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各圖書館이 個別的으로 또는 散發的으로 資料의 選擇을 한다든가 또는 前後 計劃없이 充分한 選擇없는 資料購入이란 止揚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選擇圖書目錄에 依한 體系的인 共同選擇이란 次年度 購入豫定の 圖書目錄 特別 外國雜誌目錄같은 것을 作成해서 發表함으로써 他圖書館과의 共同選擇을

圖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購入의 節次인데 이것 역시 共同選擇에 依한 圖書目錄 即 list에 依해서 共同으로 購入하는 方法입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實踐을 보지 못하고 있는 故로 理想論에 不過합니다.

또 한가지 方法으로는 分擔收集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요즘과 같이 인프라는 甚하고 各地方에 따라 多少 差異는 있을 줄 압니다만 圖書館에 對한 豫算策定에 있어서 削減一路인 때에 特別 考慮되는 問題입니다. 即 各圖書館마다 固有한 特色을 살리는 方向의 컬렉션(collection)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仁川市立圖書館의 例를 든다면 地域的條件이 港口都市이니 만치 水産業에 關한 專門書籍이라든가 船舶에 關한 圖書를 비롯해서 地域社會에 適合하고 그 生理에 맞는 가장 利用價値가 높은 컬렉션을 具備함으로써 個性을 살리는데 置重하는 點입니다. 그래서 農科大學이 있는 水原市立圖書館 같은 데는 農業과 農學에 關한 專門圖書를 가장 많이 收集해 둡니다. 이러한 資料를 相互協助하는 길은 萬若 우리 仁川市에서 園藝講習이 열렸을 때 많은 受講者들이 그 方面의 冊을 보려고 쇄도해 온다고 假想할 때 仁川市立圖書館에는 유감스럽게도 園藝에 關한 冊이 한 두권 밖에 없을 때 어떻게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앞서서 地域社會奉仕가 圖書館人의 主要任務라든가 하는 적어도 自己地域內에서 일어나는 行事라든가 社會에 關해서 恒常 關心을 기우리고 藏書와 關聯시켜서 事前에 어떠한 對備策이 必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自己圖書館에 없는 冊은 그 冊을 所有하고 있는 他圖書館에서 長期貸出을 해본다든가해서 閱覽에 提供할 수 있는 契機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主로 圖書에 關한 問題였는데 出版物의 交換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非賣品으로 取扱되는 資料라든가 購入費不足으로 사들이지 못하는 資料 또는 絶版되서 書店에서 入手할 수 없는 資料等を 交換으로 因해서 容易하게 具備할 수가 있을

니다. 예를 들면 美國圖書館協會誌(ALA Bulletin)같은 것은 現金으로 살 수 없는 좋은 資料인데 이것은 交換에 依해서가 아니라(會員)團體個人이라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交換에는 自己機關의 刊行물을 交換對象으로 하는 境遇가 있고 重複本이나 不必要한 冊을 交換對象으로 하는 두 가지 種類가 있습니다. 그리고 國內交換과 國際交換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國會圖書館에서 國內는 勿論이고 國際交換課를 따로 設置해 놓고 活潑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重複資料의 交換處로 第一 널리 알려진 곳은 美國의 圖書交換處(United States Book Exchange USBE)와 英國의 國立圖書交換處(British National Book Exchange BNBE)의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國內에서도 한 圖書館에 重複本을 많이 싸두고 있는 것 보다는 그 冊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圖書館과 相互交換해서 藏書의 均衡을 圖謀하도록 努力해야 되겠습니다.

#### 나. 資料의 整理

資料整理에 있어서 우리가 當面한 隘路點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分類表 使用에 있어서 統一을 期하고 있지 않다는 點입니다. 그리고 또 現在 우리나라와같이 形形色色的 分類表 即 朴 奉石先生編의 KDC 류이의 DDC와 圖協에서 나온 KDC 以外에 特殊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中에는 自己에 나름대로의 주먹구구식 分類법을 쓰고 있는 데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數年前부터 綜合目錄의 必要性을 主唱하고 그 着手을 試圖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國內 各公共圖書館의 藏書조차 把握 못하고 있을 뿐더러 各己 色다른 分類表를 使用하고 있으니 만큼 이것을 가지고 綜合目錄을 만들려면 各圖書館에서 내놓는 藏書目錄을 어느하나의 統一된 分類表로 改定해야 된다는 問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遲遲不振狀態에서 안타까운 제자리 걸음만 하고있는 實情입니다. 우리는 于先 分類表使用을 統一化하고 各圖書館마다 多少 質의 良否를 莫論하고 藏書目錄을 만들어 내도록 努力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資料整理의 迅速化와 體系的인 能率을 올리기 爲해서 全國적으로 印刷카드를 使用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國會圖書館에서 圖書의 印刷카드를 使用하고 있고 또한 配布도 하고 있습니다. 그 對象處로는 公共圖書館으로서 國立中央圖書館과 南山圖書館에 無料로 配布하고 있고 綜合大學校中央圖書館에 13個處에 限해서 無料配布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印刷 카드를 實質上 어떻게 使用하고 있는가에 對해서는 알아 볼 時間的 여유를 가지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합니

다. 앞으로 全國적으로 이 印刷카드의 配布가 擴張되고 또 그것을 有機적으로 使用해나갈 수 있는 體系를 갖추어 나가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 다. 資料의 利用

이와같이 해서 整理된 資料를 어떻게 利用할 것인가 하는 點을 생각해볼 때 相互貸借關係가 重要な 論點을 차지하게 됩니다.

相互貸借란 勿論 文字 그대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個人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機關對 機關의 名目으로 長期貸與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國內貸借과 國際貸借의 두 가지 種類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國際貸借을 實施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고 國內貸借은 國立中央圖書館에서 하고 있는데 正確히 살펴보면 이것도 貸借라기보다는 貸與에 가까운 것으로서 寄贈을 많이하고 있고 5, 6個處에 6個月 期限으로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最近의 喜消息 하나로는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美國公報院과 紐帶를 갖고 閱覽席을 따로 마련해서 美國公報院側의 原書를 貸與받아 다 閱覽에 寄與하게 되었다는 點입니다.

이 相互貸借에 있어서는 實質上으로는 여러가지 難點도 있습니다. 첫째 多數의 圖書를 빌려오는데 對한 運搬等 經費問題 또는 時日의 所要, 破損時의 變上문제等 考慮되어야 할 點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莫然히 貸借關係를 갖는 것보다도 어떠한 하나의 共通된 規程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루울에 依해서 實行함이 理想的이라고 생각합니다. 貸借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좋은 方法으로는 북모우빌(Bookmobile) 即 自動車文庫를 갖고 있으면 좀 더 效果的인 相互貸借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두臺 以上の 북모우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公共圖書館活動에 있어서 地域社會活動의 重要な 役割을 차지할 뿐더러 좀 더 널리 좀 더 많은 讀書層 開發과 市民과의 相互紐帶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遼然한 꿈이라고만 흘러 버릴 것이 아니라 어느 도서관이고 먼저 自動車文庫를 하나 만들어서 試圖해 보도록 간절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相互貸借의 또 한 가지 難點으로서 冊의 크기가 너무 큰 것 또는 貸出이 困難한 貴重本이나 광물 種類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所謂 마이크로필름을 利用해서 複寫를 하면 됩니다. 오늘 날과 같이 視聽覺資材의 必要性이 再認識되고 先進各國에서는 눈부신 發展相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이니만치 우리도 可能的 限 文獻複寫에 對한 關心을 많이 갖고 實現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現在 延世大學校 視聽覺센터에는 여러가지 視聽覺資材가 具備되고 文

獻復寫等を 實地로 해갈 수 있는 便宜도 봐주고 있습니다. 但 이것은 延大圖書館의 有志를 通하시면 더욱 可能합니다.

다음은 資料의 利用을 뒷받침 해주는 書誌情報를 어떻게 交換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입니다. 各分野別로 中央에 情報센터를 두고 이곳에서 수시로 情報를 提供 또는 交換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運營面에 關한 情報 또는 資料에 關한 情報를 電話나 文書를 通해서 보다 迅速히 取함으로써 廣範圍한 視野에서 百科辭典的 頭腦의 所有者임을 誇示할 수 있는 專門職司書들의 베놓을 수 없는 活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情報活動에 있어서는 特히 歐羅巴에서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어 英國에서는 各種의 研究組合(Research Association)의 情報活動이 優勢하고 歐洲全域을 對象으로하는 Organization for European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情報活動 등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翻譯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OECD는 그 前身이 OEEC로서 이니쉬워티브에 依한 歐洲 13個國의 協力を 얻어 1960년에 設置되었습니다. 美國에는 Office of Technical Service가 있는데 이것은 美國商務省에 屬하는 政府機關입니다. 이것은 서로 情報를 交換하고 OECD에서는 翻譯資料인 비브리오그래피—Bibliography를 내고 있고 後者は Technical Translations를 내고 있습니다.

라. 資料의 管理

그 다음은 資料의 管理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收容能力은 限定되어 있는데 資料는 자꾸만 增加해가는 實情에 비추어 書庫增築이 不可能할 때 隣近圖書館과의 協力を 얻어 共同保管을 圖謀하는 길이 있습니다. 勿論 利用價値의 稀少한 圖書를 選出하여 保管하는 것

을 말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分館을 갖고 있는 圖書館 或은 學校圖書館 같은 곳의 餘白을 利用해서 保管依賴를 할 수 있는 問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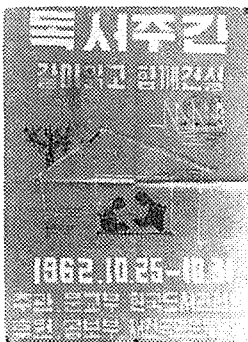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 구배어 保管해야 할 價値가 없는 資料는 廢棄處分을 해야 됩니다. 이 廢棄處分도 相互協助해서 順次的으로 調整해나가야 됩니다. 事實上 地方圖書館에 있어서 廢棄處分에 神經을 쓸만한 곳이 몇군데나 될까요. 廢棄는 고사하고 藏書數 채우기에 汲汲해야 되는 實情임은 痛嘆해마지 않을 것입니다 만 十年大計를 爲해서 深重히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마. 其他圖書館 全般問題

끝으로 圖書館全般에 對한 問題로서 人事交流를 들고 싶습니다. 有能한 司書를 養成하는 한 方法으로써 他圖書館에 派遣勤務시키는 方法이 있습니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도 있드시 아무리 앉아서 口로 가르쳐도 잘 納得이 안가는 것도 直接가서 보면 그 특이 빠른 法도 있느니 만치 可能한 範圍內에서 試圖해 볼 수 있는 問題입니다.

그리고 圖書點檢은 반드시 1년에 1回以上 實施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하고서는 藏書實情을 把握할 수 없고 따라서 圖書館奉仕에 萬全을 期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以上과 같은 모든 條件을 잘 履行할 수 있는 有能한 司書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므로 職員의 資質向上은 오히려 第一 앞서야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故로 專門職 司書以外的 모든 圖書館職員은 다같이 圖書館에 대한 理念부터 自覺해 주고 보다 理想的인 奉仕面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交替制로 實務者講習을 履修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962

- 알아야 살 수 있고  
읽으면 알 수 있다.
- 읽는 재미  
얻는 지식



1963

- 벗삼아 읽은 책  
평생의 스승
- 정성모은 독서에  
빛나는 내일



1964

-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